

■ 김부총리 거취 오늘 국회 교육위가 중대 고비

사실상 청문회... 與野, 자진사퇴 옥진다

김병준 교육부총리 거취 논란이 1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를 계기로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김병준 교육 부총리의 출석으로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는 사퇴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정치권과 '선 사실 규명'을 내세우며 버티고 있는 청와대의 힘겨루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與, "야당보다 더 강하게 추궁"

△열린우리당=인사청문회 당시만 해도 '갑자기' 등 소극적 태도를 보여 온 우리당 교육위원들은 이번 회의를 사실상 '청문회'에 준하는 형식으로 치른다는 방침이어서 '야당보다 더 강하게' 김 부총리를 추궁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당 지도부의 스탠스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우리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위 소집에 응해 엄중한 진실 규명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野 "관철 안되면 해임건의"

△한나라당 등 야당=한나라당은 이번 회의에서 김 부총리에게 해명의 기회를 줄 필요 없이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 4당은 지난달 31일 김병준 부총리에 대한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일 야 4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해임 건의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김 부총리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자진사퇴를 거부할 경우 대통령이 총리가 강제로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논문 이종계재 등의 문제로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김병준 교육부총리(왼쪽)가 지난달 31일 집무실로 향하는 승강기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조순형 상임고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규정한 헌법 제87조 3항을 언급, "민주당 의원들이 한명속 총리를 찾아가 해임건의의토록 촉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와 김 부총리가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별다른 출구가 없다"며 "민노당은 적극적으로 해임요구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靑 "진실규명 선행돼야"

△청와대=청와대는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 표절과 논문 중복 게재 논란'과 관련해 김 부총리의 사퇴 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진실 규명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 보도를 통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병준 부총리가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공식 요청한 만큼 사실 관계에

대한 규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이번 사안이 김 부총리가 사퇴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총리,靑에 사퇴 건의 가능성

△향후 전망=정치권에서는 김 부총리의 사퇴가 임박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김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다 1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도 김 부총리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한명속 총리가 회의 직후 청와대에 사퇴를 건의하는 형식으로 김 부총리 거취 논란을 정리할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가 강하다.

특히 일각에서는 김 부총리가 자진사퇴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감싸고... 비난하고... 우리당 金부총리 사태 이견

장영달의원 "서울대 만나와서 당해"

열린우리당 장영달(사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김병준 부총리에 대한 사퇴압박과 관련, 비명문대 출신(영남대)이어서 교육계 안팎에서 부당하게 공세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김 부총리가 서울대를 나왔으면 이 정도 공격을 받았겠느냐"며 "김 부총리가 명문대가 아니라고 해서 무자비하게 공격받고 있다는 시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관직에) 서울대 출신이 50%가 넘어야 악재가 크다"며 "제3 대학 출신이 교육부총리가 되니까 소위 명문대 출신이라는 지식인들이 봐 주질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현직 대학총장을 만나보니, 같은 논문을 내 군데 실었다는 분도 있더라. 그것이 관행이라고 하더라"며 "과거 관행이었는데 지나치게 공격을 받고 받고 있다면 그건 또 따로 문제로 처리해야 될 것 같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광원 의원 "왕의 남자" 물러나야

열린우리당 한광원(사진) 의원은 31일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이른바 '왕의 남자'에 빗대면서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누군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왕의 남자가 그 스스로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우리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다면 공자의 말씀대로 신하를 잘 선임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망을 얻는 현명한 사람을 널리 구해 등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의원은 이어 청와대 참모들을 향해 "대통령의 인사는 존중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중하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뚜렷하게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특히 "참모들은 '대통령은 오류가 없는 분이라 생각하느냐' '대통령의 오류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되받아서 직언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개성공단엔 당신의 발자취들이..."

현정은 회장, 思夫曲으로 남북경협위기 극복 다져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남북경협이 큰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남편 정몽헌 회장에게 보내는 사부곡(思夫曲)을 통해 흔들림없는 경영사업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현 회장은 지난달 31일 고 정몽헌 회장 3주기를 즈음해 언론에 공개한 고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참담주인 정주영 회장이 제창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현대그룹의 개척 정신을 환기시키며 위기 극복에 대한 정진 무장을 강조했다.

3년 전 갑작스레 세상을 등진 남편 정몽헌 회장의 뒤를 이어 현대그룹을 이끌어 온 현 회장은 KCC와 현대증권, 업그룹과의 경영권 분쟁과 김윤규 전 부회장 사퇴 파문 등 온갖 풍랑을 헤쳐 오면서 중대 고비마다 국민이나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직원들의 용기를 북돋아 왔다.

현 회장은 편지에서 "당신이 첫 삼을 뜬 개성공단은 하루가 다르게 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고, 하나로 뻗은 경의선과 동해선이 이제 철마의 뜨거운 몸짓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현대의 꿈과 희망도 시련 위에서 더욱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현 회장은 이어 "앞으로 몇 해가, 아니 몇 십 년이 더 지나가도 더 선명해지지만 할 당신의 발자취들이지만 그 길을 쫓아가는 저의 걸음이 느린지 자꾸 넘어지기만 한다"면서도 "그래도, 아무 일 없었던 듯 잊어서려 한다"고 다짐했다.



고 정몽헌 회장 3주기를 맞아 지난달 31일부터 현대상선 사옥에서 '3주기 추모시집'이 열렸다. 시집은 1976년 8월 신혼시집 강릉으로 여행을 떠난 정몽헌 회장 부부의 모습. /연합뉴스

현 회장은 이어 "앞으로 몇 해가, 아니 몇 십 년이 더 지나가도 더 선명해지지만 할 당신의 발자취들이지만 그 길을 쫓아가는 저의 걸음이 느린지 자꾸 넘어지기만 한다"면서도 "그래도, 아무 일 없었던 듯 잊어서려 한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Chonnam Gosihakwon (전남고시학원) featuring public service exam preparation and a 40th anniversary celebration.

Advertisement for a TV installation service (42-inch PDP) and a hotel (Black & White Motel).

Advertisement for Naeyoung Gosihakwon (낙내영고시학원) with a focus on exam preparation and a 7th anniversary event.

Advertisement for Hyeonjae Job Training College (현대직업전문학교) offering various vocational courses.

Advertisement for Mudeung Gosihakwon (무등고시학원) for public service exam preparation.

Advertisement for Gwangju Gosihakwon (광주고시학원) featuring a special course for public service exam preparation on August 1st.

Advertisement for Hanbit Gosihakwon (한빛고시학원) for public service exam preparation.